

경륜·경정 '자발적 출입제한제도' 시행 본인·가족 요청으로 가능...과몰입 피해 예방 차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제) 경주사업총괄본부는 경륜경정 이용고객의 경주 과몰입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 또는 가족의 자발적 요청으로 전 영업장 출입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자발적 출입제한' 제도를 시행한다.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조부모, 부모, 자녀)이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영업장(경륜경정 분장 또는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본인이 신청할 때는 신청서와 신분증이 필요하고 가족이 신청할 경우는 신청서, 신분증 외에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지참해야 한다.

경주사업총괄본부는 경주사업관리시스템(내부 활용 시스템)에 출입제한 신청자를 등록하고, 전 영업장에서 등록내용을 확인해 출입제한 등 입장관리를 하게 된다.

출입제한의 해제는 첫 신청 후 최소 1년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희망일 및 상담사와의 상담 과정을 거쳐 소견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절차를 마치면 경주사업관리시스템 상에 등록사항을 삭제하여 영업장 입장이 가능하다. 출입제한의 최대 기간은 3년까지다.

이수진 기자

내달초부터 2주내 4일간 특별 경륜 진행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10월 1일부터 4일 그리고 8일부터 11일까지 2주간 월요일을 포함한 4일간의 특별경륜을 시행한다. 월요일 경주는 금요일 경주와 동일하게 12경주(광명 6R, 창원 3R, 부산 3R)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한 경주권 구매는 경륜경정 홈페이지 내 스피드온(Speed-On) 모바일 앱 또는 온라인 포털 회원가입을 통해 가능하다.

미사령정공원 'AR 건강건강기 챌린지'



국민체육진흥공단 경주사업총괄본부는 10월 1일부터 한 달간 미사령정공원 일대에서 'AR(증강현실) 건강건강기 챌린지(사건)'를 개최한다. 증강현실 체험과 함께 야외에서 가벼운 산책을 즐기는 프로그램으로 미사령정공원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 비용은 무료다. 참여방법은 스마트폰 위치기반 AR서비스 앱(트레저니)을 설치하고 첫 포인트인 입체연결통로에서 AR가메라를 켜고 공원안내도를 스캔하면 챌린지 방법을 알려준다. 이후 안내에 따라 코스별 콘텐츠를 체험하고 QR코드를 스캔하여 인증, 퀴즈풀이 등 미션을 수행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설문조사를 마치면 챌린지를 완료하게 된다.

편집 | 심수수 기자 sss23@donga.com

'시즌 초반 부진' 경륜 신인 26기가 깨어났다



'역대 최악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던 26기 경륜 선수들이 최근 선발급에서 맹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선수들의 경주 모습.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역대 최악체? 훈련원 기록은 숫자에 불과”

배수철, 3회차 만에 '우수급' 승급
졸업 끝까지 김영수, 삼연대율 100%
김주석·전경호·강동규 등도 눈길



배수철 김영수

●훈련원 순위는 과거, "지금 모습을 보라"

이번 시즌 26기 신인들이 경륜 레이스에 참가할 때 세간의 평가는 그리 후하지 못했다. 시즌 초반 부진한 성적을 거두자 일부에서는 '역대 최악체'라는 야박한 평가마저 나왔다. 사실 성적을 보면 이런 평가에 대해 반박할 내용이 별로 없었다. 그만큼 경주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거두지 못했다.

선행으로 나서던 종속이 줄어들어 결과가 좋지 못했고, 마크를 하면 노련한 선배들에게 밀리며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즘 26기들의 경기 모습을 보면 '예전의 그 선수들이구나' 눈을 의심할 정도로 확 달라졌다. '역대 최악체'란 평가를 비롯듯 최근 성적이 예상외로 좋다. 특히 선발급에서는 이들을 빼면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실력이 급성장했다.

선발급에 진출했던 26기들 중 훈련원 성적만 보면 김주석(양양)이 4등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졸업순위는 숫자에 불과했다.

26기 중 가장 먼저 특별승급에 도전했던 배수철(전주)은 3회차 만에 우수급 진출에 성공했다. 그의 졸업순위는 7등. 하지만 배수철은 경주에서 모든 전법을 소화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며 특별승급을 이루었다. 아직 9연속 입상 중 우승이 세 차례 뿐이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구력만 더 보강하면 충분히 우수급에서 통할만한 전력이란 평가다.

26기 22명 중 졸업순위가 가장 낮았던 김영수(세종)도 현재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다. 9번 출전해 8번 우승, 삼연대율 100%를 기록 중이다. "훈련원에서 부상만 없었다면 수석졸업이 될 수 있었다"던 그의 자신감이 괜한 허풍이 아님을 성적과 경기내용으로 증명하고 있다. 큰 이변이 없다면 곧 우수급으로 특별승급할 전망이다.

그 외에 탈선발급 시속을 보여주는 김주석과 자력승부로 눈도장 찍는 전경호(북광주), 강동규(충북개인), 김다빈(북광주) 그리고 기술을 바탕으로 한 박찬수, 박지용(수성) 등도 한 단계 위를 바라보며 꾸준한 성적을 내고 있다.

●이제부터 진짜 실력을 보여준다

26기 중 수석졸업인 정현수(계양), 차석 이태운(북광주), 3위 방광산(세종)은 우수급으로 배정 받았다. 이들은 시즌 초반 경주에 들어가면 눈에 띄게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중 이태운은 수석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으며 10번의 우승

(승률 48%), 삼연대율 81%를 기록해 우수급 강자로 활약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대를 모았던 정현수는 3회차 만에 뒤늦게 첫 우승을 신고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잘해야 3차 정도의 선행력을 보여주고 있다.

방광산도 첫 3회차에서는 순위권 안에도 들지 못하며 부진을 보였다. 그나마 최근 우승과 동시에 자력승부에 힘을 받고 있는 모습이다. 세 선수 모두 실력 면에선 전혀 뒤집게 않고 짙다는 장점도 있어 긴장감만 뺀다면 유감없이 자신의 기량을 나타낼 수 있어 보인다.

이근우 명품경륜 수석기사는 "현재 26기들이 선발급에서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 큰 변화가 없는 한 선발급은 26기들이 대세라고 봐도 무방하다. 몇몇 강자들이 우수급으로 특별승급하면서 그 자리를 26기들이 채우고 있다. 신인들 간의 격차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 경기내용, 특이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조언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뜨거웠던 '한가위 대전'...김종민·심상철 명불허전

12기 조성인 3회 출전서 1착만 2회
주은석·박종덕 후반기 첫 승에 성공

추석 연휴기간에 72명의 경쟁 선수들이 멋진 경기를 펼치며 미사리 수면을 뜨겁게 달궜다.

올 시즌 기량을 되찾으며 꾸준한 성적을 기록 중인 김종민(2기 A1 44세)은 34회차에서 안정감 있는 경기력으로 3회 출전 중 1착 1회, 2착 2회를 기록했다. 7기를 대표하며 현 경쟁 최강자인 심상철(A1 40세)도 사전출발위반(F)의 아쉬움을 극복하고 플리잉을 제외한 두 번의 경주에서 1착 1회를 기록했다. 12기 조성인(A1 40세) 또한 3회 출전 중 1착 2회를 기록하며 강자다운 위용을 보여

주었다. 그동안 첫 승 도전에 실패했던 선수들도 집중력을 발휘하며 마침내 후반기 첫 승에 성공했다. 주은석(5기 A2 40세)은 후반기 11번째 출전경주(34회 1일 9경주)에서 도전의 결실을 맺었다. 박종덕(5기 B2 44세)은 20회 1일차 3경주(6월 16일)에서 사전출발위반(F)으로 제재를 받았지만, 스타트 집중력을 끌어올려 34회 1일차 6경주(9월 22일) 1코스에서 인빠지기로 첫 승에 성공했다. 박준호(10기 B2 36세) 역시 34회 1일차 2경주(9월 22일)에서 휘감아짜르기로 후반기 첫 승을 달성했다.

반면 아쉬움을 남긴 선수도 있었다. 25회 1일차 경주를 시작으로 6연속 6착을 하며 특별강급 위기를 맞은 권일혁(6기 B1 41세)은



경정 선수들이 물살을 가르며 미사리경정장 수면위를 질주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34회 1일차 10경주 1코스에 출전해 부진 탈출을 노렸으나 사전출발위반(F)을 범하고 말았다. 후반기 A2등급으로 승격한 이승일(5기 A2 43세)은 34회차에서 후반기 첫 승에 도전했지만 실패했다.

추석 기간 레이스에서는 여자선수들의 파이팅 넘치는 경기도 인상적이었다. 신현경

(9기 B2 42세)은 32회 차(9월 1·2일)에서 2승으로 올 시즌 첫 번째 승리이자 첫 연승을 동시에 기록했다. 자신감을 얻어 34회 2일차(9월 23일) 14경주에서도 1착을 해 올 시즌 이번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하서우(14기 B2 28세)는 전체적으로 불안한 스타트와 선회에서도 최근 모터기력이 받쳐주면서 3차 승부를 펼치며 입상해 모터와 편성을 살펴 공략해 볼 수 있는 선수로 떠올랐다.

이서범 경정고수 경기분석 위원은 "우승을 한 선수들은 지금까지 꾸준한 성적을 거두도록 더욱 집중하기를 바란다. 반면 순위권 진입에 실패했지만 주목할 만한 경기력을 보여준 선수들은 파워 넘치는 도전정신을 잊지 말고 다음 출전경주에서의 좋은 성적을 위해 조금 더 담금질을 할 것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골프

금의환향 최경주, 'KPGA 투톱' 박상현·서요섭과 진검승부

내일부터 '최경주 인비테이셔널' 출전
PGA 챔피언스 우승 상금세 이을지 관심



한국인 최초로 PGA 챔피언스 투어에서 정상에 오르며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최경주가 2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받은 표정으로 귀국했다. 최경주는 자신이 호스트를 맡은 현대해상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해 후배들과 우정의 대결을 펼친다. 사진제공 | 스포터즈

미국프로골프(PGA) 챔피언스 투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린 '탱크' 최경주(51)가 자신의 이름이 걸린 대회를 통해 2년 만에 국내 무대에 복귀한다. 올 시즌 각각 2승을 거둔 박상현(38), 서요섭(25)과 진검 승부를 예고하고 있다.

최경주는 30일부터 나흘간 경기 여주시 페럼클럽 동·서코스(파72)에서 열리는 2021년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아투어 14번째 대회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0억 원·우승상금 2억 원)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최경주가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2011년 창설한 무대. 2016년부터 현대해상과 함께하며 올해 10회째를 맞았다. 이 대회 1·2회 우승자이기도 한 최경주는 2019년 대회에선 단

독 3위를 차지했다. PGA 정규 투어에서 8승을 거두며 아시아 국적 최다승 기록을 갖고 있는 최경주는 27일(한국시간) 끝난 PGA 챔피언스 투어 투어 인슈어런스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올랐다. 만 50세 이상만 참가하는 '시니어 무대'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쾌거를 달성했다.

PGA 정규 투어와 챔피언스 투어를 병행하며 여전히 왕성한 활동력을 자랑하고 있는 최경주는 챔피언스 투어 샌퍼드 인터내셔널 준우승에 이어 2주 연속 뛰어난 성적을 거두면서 세월을 거스르는 늑골지 않은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28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최경주는 "비쁜 일정이지만 시치를 극복하고 컨디션 조절을 잘 해 중

은 경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후배들 기량이 예전보다 훨씬 좋아져 경쟁하기가 정말 쉽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 일단은 첫 통과가 목표"라고 밝혔다.

최경주와 함께 눈 여겨 봐야 할 선수는 올 시즌 코리아투어에서 '유이'하게 2승을 거두며 다승자가 된 박상현과 서요섭이다. 7월 우승종환건설 부산경남오픈에 이어 직전 대회였던 DGB금융그룹 어바인 오픈에서 정상을 밟은 박상현은 코리아투어 통산 10승을 수확한 실력파. 올 시즌에는 생애 첫 제네시스 대상포인트 1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제네시스 포인트 4764점으로 1위 김주형(19·4940점)에 단 176점 뒤져 있고 제네시스 상금순위에서도 4억 3412만 원으로 4위에 랭크돼 있다.

대상포인트(4940점), 상금(6억3493만 원)에서 각각 1위에 올라있는 김주형(19)이 큰 페리투어 1차 웰리파인 토너먼트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박상현은 이번 대회에서 단독 22위 이상을 기록하면 대상포인트에서 김주형을 앞지르고, 우승상금 2억 원을 보탬다면 상금에서도 81만 원 차이로 추격하게 된다. 이번 대회 우승자는 대상포인트 1000점을 가져간다.

8월 KPGA 선수권대회와 9월 신한동해 오픈 등 '메이저급' 두 대회에서 우승한 서요섭 역시 대상포인트 3096점(4위), 상금 5억 1493만 원(2위)을 기록 중이다. 서요섭이 다시 챔피언스 트로피를 가져간다면 김주형을 넘어 상금 1위에 오를 수 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